

# 인문학에서 융복합 이공계 명문대로 거듭난다

인재육성 산실  
동국대학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일조했던 3대사학 중 하나인 동국대가 최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에서 융복합을 토대로 한 이공계의 명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국대의 변화는 각종 평가에서 두드러진다. 동국대는 중앙일보가 매년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 뛰어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국대는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평가순위가 상승한 대학이다. 2010년에 17위, 2011년에 14위, 2012년에 13위에 올랐다.

올해 발표된 대학생 만족도 평가에서 8위에 올랐다. 교육과 연구, 평판도 주된 평가기준으로 삼는 대학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과부로 느낀 만족도 역시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봐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교직원 친절도 3위 ▲학사행정 만족도 5위 ▲기업 협장실습 기회 6위 ▲정보화 만족도 5위 ▲인성교육 만족도 7위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른 만족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실시된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NCS)에서도 동국대는 사립대학 4위에 랭크됐다. 2010년 경향신문 학생 편의부문에서는 2위의 성적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발표된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 평가에서는 ▲사회과학·경영분야에서 41위를 기록했다. 국내대학 중 서울대(5위)와 연세대(14위), 고려대(15위), 성균관대(25위), 카이스트(28위)에 이어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또 ▲인문·예술분야에서는 65위를 기록했다. 국내 대학 순위로 보면 11위를 기록해 지난 해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리고 아시아 대학중 국제화 순위에서는 전체 17위, 한국 대학중에서는 한국외대와 한양대에 이어 3위에 오르는 성적을 거뒀다.

이처럼 동국대가 교육과 연구, 학생들의 만족도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문화학·영어·영화 등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온 동국대학교가 산학협력과 학부교류 혁신을 기반으로 융복합 학문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교육과 연구부문의 성과를 뚜렷이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학교측의 획기적인 교육인프라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동국대는 2011년 IT 관련학과 연구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사를 벌여온 신공학관을 완공했다. 또 경기도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과 산학협력관, 종합강의동도 완공했다. 같은 이파른 교육인프라 확대로 IT(정보통신)·교육분야와 NT(나노과학)·교육분야의 연구 인프라가 3배 가량 늘어났다. 교수들의 연구실은 물론 강의실,



동국대 서울캠퍸스 전경

세미나실, 실험실 등이 대폭 확충된 것이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이 선행된 것이다.

신공학관은 연면적 2만 3075㎡에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IT·전자전기·반도체 관련 학과의 연구실과 실험실로 이용되고 있다. 교수들은 물론 대학원생들을 위한 전용 연구공간도

계 교육을 더해 이공계와 인문학을 동시에 육성하는 전략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최근 이뤄진 일련의 대내적인 연구 인프라 확대를 바탕으로 이러한 융복합 교육에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문학 중심 대학에 첨단 융복합 이공계 교육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가 이처럼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학부 교육 선진화와 대내적인 연구인프라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고등교육 보편화와 분과학문 중심의 과편화된

컴퓨터 공학과 홍정모 교수는 정부지원과제를 통해 개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영화 '제7광구'의 컴퓨터 그래픽을 완벽히 처리해낸데 이어 현재는 중국 영화 '적인걸'의 컴퓨터 그래픽을 맡아 새로운 CG기술을 선보이려 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 개발 등 특히 외교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일산캠퍼스에 조성된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는 정부로부터 초음파 의료장비 개발 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최근에는 아주약품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도 디자인으로 전개됐다. 2008년 국내 대학 최초로 CS경영을 도입해 원스톱 학사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강의평가제도를 국내 대학중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 성과평가제도를 실시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을 이끌어 냈다. 남급으로 코앞에 보이는 곳에 7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첨단시설의 기숙사도 완공했다. 기숙사는 지방학생들에 우선 배정해 지방학생들이 맘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2인 1실로 운영되는 기숙사에는 헬스클럽과 식당, 카페, 편의점, 빨래방, PC방 등이 들어서 학생들의 복지를 책임진다.

동국대가 이처럼 견고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힘은 25만명에 이르는 동문들의 기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동국대는 전국대학중 기부금 순위 6~10위에 이르는 모금을 해내고 있다. 학교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불교계와 동문들의 기부가 따르기 때문이다.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와 동문, 그리고 구성원들의 노력이 삼위一体로 이루어져 동국대는 과거 3대사학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할 준비를 마쳤다. 3대사학의 영광을 위해 팔을 걷어부친 동국대의 애심찬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dongguk  
UNIVERSITY

정보통신·나노과학 등 특성화 교육위해 연구 인프라 3배 확대

亞대학 평가, 사회·경영분야 국내 6위 등 대학평가 3년연속 상승

남산인근에 첨단기술사 만들어 지방 학생들 우선 배정 '복지 선도'

배정됐다. 동국대는 신공학관 완공에 이어 기존의 공대 건물도 리모델링을 마쳤다.

동국대는 또 2011년 5월 의과학·약학·한의학·생명공학을 하나로 묶어 융합형으로 교육하는 경기도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를 개교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1단계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0년 1단계 공사가 완료된데 이어 2단계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산학협력관 및 강의동과 종합강의동이 완공됐고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약학관도 2011년 8월 문을 열었다.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는 기존의 동국대 일산병원 주변에 연구중심기능을 특성화한 것으로 의과대학·한의과대학·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이 결집하고,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와 임상시험센터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하브로 도약하고 있다.

동국대의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인문학 교육 전통에 융합형 이공

교육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문제, 고도화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속에서 탄탄한 인성에 기초한 통섭의 교양을 갖춘 인재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동국대는 이러한 대학교육 패러다임 혁신과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을 선도하는 융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를 지난해 신설했다.

튼튼하게 구축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학과 인문학, 나아가 새롭게 구축된 통섭형 교육과정을 통해 융복합 학문의 중심으로 새로운 대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동국대의 이러한 노력은 이미 산학협력 분야에서 서서히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과 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돼 인문학과 문화예술, 영화 등의 기존 학문구조에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CT(문화공학) 분야에서도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소통 리더십으로 ‘제2전학’ 이끄는 김희옥 총장



‘인재 동국 프로젝트’ 만들어

우수인재 사회에 배출 시킬 것

취임 3년째를 맞는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동국대학교 법학과 68학번이다.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해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김씨로서 법조계에 몸담았다. 법무부 차관을 거쳐 법조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한법재판판을 역임했다.

그리고 모교 총장으로 부임해 소통의 리더십으로 제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임 이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 2전학운동을 선언하고, 동국대의 제 2전쟁기를 이끌고 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선암동 전원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 단지설명 자연 속 힐링 주거단지
-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 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